

0-4 → 6-1…세상 누구도 바르샤의 기적을 예상하지 못했다

(1차전)

(2차전)

사커 토막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전 6골 폭발
1차전 0-4 뒤집기…챔스 역사상 첫 기록
엔리케 감독 “우리 실력 의심한 적 없다”



‘YES, WE CAN.’

역사의 현장을 찾은 한 팬이 준비한 플래카드의 짧은 문구였다. 그들은 정말 해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기적을 FC바르셀로나(스페인)가 연출했다.

바르셀로나는 9일(한국시간) 홈구장 누 캄프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프랑스)과의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6-1 대승을 거두며 대회 8강에 올랐다. 원정 1차전에서 0-4로 무너진 바르셀로나가 16강 관문을 통과하리라 예상한 이는 극소수였다. 오직 자기 자신들 뿐, 백이면 백 고개를 저었다.

정규시간 승부를 가려면 5골 이상 기록한 뒤 무실점으로 막아야 했고, 1실점이라도 하면 5골 차로 이겨야 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은 현실이 됐다. 추가시간까지 95분이 흐른 뒤 누 캄프 전광판에 새겨진 스코어는 6-1. 지난달 15일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침몰시켜 역사를 쓴 파리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고두고 회자될 엄청난 기적을 더욱 뜨겁게 할 가슴아픈 조연에 머물게 됐다. 1차전 0-4 패배를 2차전에서 뒤집어 버린 바르셀로나의 기적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처음이라 의미와 가치를 더했다.

●원 팀! 이래서 바르셀로나!

3-1로 앞선 후반 20분, 3골이 더 필요한 바르셀로나 벤치가 내놓은 카드는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아르다 투란이었다. 3분 전 파리 공격수 카바디에게 내준 실점으로 8강행에 필요한 득점이 1골에서 3골로 늘어나며 한풀 꺾인 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택이었다. 승부수가 적중했다. 다시 공세의 고삐를 당긴 바르셀로나는 후반 43분과 추가시간(페닐티킥·PK) 터진 네이마르의 연속 골에 이어 후반 81분 교체 투입된 세르지 로베르토가 후반 50분 썬기틀 박아 1·2차전 180분 혈투를 마무리했다. 가장 아름다운 밤을 만끽한 투란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계정에 “당신은 이를 기적이라 해도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적었다.

바르셀로나의 진짜 힘은 화려함이 아닌 융합이다. 장정한 이력을 자랑하는 호화 멤버들이 함께 땀 흘리지만 오직 그들만을 위해 존재한 팀이



FC바르셀로나의 세르지 로베르토(가운데)가 9일(한국시간) 홈구장 누 캄프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팀에 6번째 골을 안긴 뒤 환호하고 있다. 결승포가 된 그의 한방으로 6-1로 이긴 바르셀로나는 1·2차전 합계 6-5로 대회 8강에 올랐다. 1차전 4골차 패배를 뒤집은 것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바르셀로나(스페인) | AP뉴시스

아니다. 지구상 최고 스타들이 ‘클럽 그 이상의 클럽’이라는 오랜 모토 속에 뭉치고 또 뭉친다. 2골의 주인공 네이마르를 비롯해 전반 3분 첫 골을 넣은 수아레스, 후반 5분 PK 추가골을 넣은 리오넬 메시의 활약이 아무리 환상적이었어도 투란과 로베르토와 같은 갑조가 없었다면 바르셀로나의 ‘평범한 하루’ 역시 존재할 수 없었다.

당연히 내용도 완벽했다. 경기 점유율 65대35(%), 유효 슈트 7대3(회)이라는 기초 수치에서 드러나듯 바르셀로나는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쳤다. 주제곡 바르토크우 바르셀로나 화상은 “오늘은 영원히 기억될 역사이자 위대한 업적”이라며 흡족해했다.

●명장! 이래서 바르셀로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역량도 빼놓을 수 없다. 결전 하루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파리가 4골을 넣었듯, 우리도 6골을 넣을 수 있다”던 그의 코멘트는 사실이였다. “잃을 건 없어도 얻을 건 많다”는 얘기도 맞아 떨어졌다. 그러나 딱 하나 틀렸다. “몇 분 사이에 계속 골을 넣기는 어렵다.” 바르셀로나의 드라마는 3차례 골 폭풍이 불

어은 최후의 7분에 이뤄졌다.

솔직히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엔리케 감독은 ‘올 시즌 종료 후’를 전제로 최근 사퇴를 밝혔다. “많이 지쳤다”는 이유를 댔지만 파리 원정 후 유증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수장의 깜짝 선언에 제자들은 뚝뚝 뚫렸다. 승승장구하는 ‘영원한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의 전반기 행보에 주눅 들었던 바르셀로나가 다시 깨어났다. 스페인 국왕 컵 결승진출에 이어 프리메라리가 선두 복귀를 통해 마지막 전쟁을 선언했다.

엔리케 감독은 이날 한판으로 그간의 모든 우려를 잠재웠다. 다 득점 승리가 절실할 때 겨낸 3-4-3 포메이션, 메시지를 중원 폭대기에 배치한 공격적인 중원 전개, 에이스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면서도 과감한 교체를 통한 분위기 전환까지 박자가 적절 맞았다. 마르카 등 레알 마드리드에 편향된 일부 언론은 “바르셀로나가 얻은 PK는 오심”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배 아픈 이들의 한심스러운 아우성으로 비쳐질 뿐이다. 엔리케 감독은 “난 우리의 실력을 의심한 적이 없다. 가장 정상적인 경기력이 다시 나왔다”고 환하게 웃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바르셀로나, 1999~2000시즌에도 역전 꿀맛

■UEFA챔피언스리그 기적의 역사

드라마틱한 승리, FC바르셀로나(스페인)는 9일(한국시간) 누 캄프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프랑스)과의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홈 2차전에서 지구촌 팬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 불가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금 각인시켰다. 원정 1차전에서 0-4로 무릎을 꿇었던 바르셀로나는 6-1 대승과 함께 대회 역사를 새롭게 썼다.

대회 출범 이후 1차전 0-4 패배를 뒤집은 건 바르셀로나가 최초다. 하루 전 아스널(잉글랜드)이 원정 1차전 1-5 패배를 안방에서 극복하려다 오히려 같은 스코어로 또 다시 무너지면서 충격만 더했기에 바르셀로나 드라마의 감동은 더 크게 다가온다.

그런데 챔피언스리그에서 기적의 역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2003~2004시즌 8강전이다. 당시 데포르티보 라 코루

냐(스페인)가 AC밀란(이탈리아)과 원정 1차전 1-4 패배를 딛고, 홈 2차전 4-0 승리로 승자를 바꿨다. 바르셀로나도 역시 기쁨을 맛본 적이 있다. 1999~2000시즌 8강 원정 1차전에서 첼시(잉글랜드)에 1-3으로 패한 뒤 홈에서 5-1로 승리했다. 2012~2013시즌 16강에서도 AC밀란에 원정 1차전 0-2 패배로 끌려가다 홈 2차전에서 4-0으로 이겼다. 위기에 더욱 강해지는 승부사의 면모를 과시했다.

물론 이밖에도 대단한 승부가 종종 연출됐다. 주로 회자되는 경기는 단판 결승이다. 1998~1999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는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0-1로 뒤지다가 후반 추가시간에 2골을 몰아쳐 기적을 완성했다. 공교롭게도 그 장소가 누 캄프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2004~2005시즌 파인애플(잉글랜드)이 AC밀란에 전반까지 0-3으로 끌려가다 후반 동점을 만들고 승부차기 우승한 장면도 장소를 따 ‘이스탄불의 기적’으로 불린다.

남정현 기자

‘사드 매치’로 치닫은 중국전, 텃세를 넘어라



김도현의 사커 드림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 긴장감 고조
23일 중국 원정 외부변수 가장 큰 적

축구국가대표팀이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A조) 후반기 일정 재개를 앞두고 있다. 울리 슈틸리케(63·독일) 감독은 중국(23일·원정)~시리아(28일·홈)와 대결할 대표팀 명단을 13일 발표한다.

최종예선 일정의 절반을 소화한 가운데 한국(승점 10)은 이란(승점 11)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과의 홈경기에서 극적인 2-1 승리를 거두며 한숨을 돌렸지만, 우즈베키스탄(승점 9)에 겨우 승점 1점을 앞섰다. 자칫하다가는 조 2위까지 거머쥐는 월드컵 본선행 티켓 확보에 머그들이 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중국과 시리아를 상대로 승점 6점을 챙기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 여건이 녹록치 않다. 대표팀의 주축을 이루는 해외파 선수들은 유례없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주장 기성용(스완지시티)은 이제 막 부상에서 벗어났고,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은 부실한 팀 내 입지 탓에 제대로 실전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겨울이적시장을 통해 프랑스로 진출한 권창훈(디종)도 좀처럼 출장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표팀 에이스로 볼 수 있는 손흥민(토트넘)도 벤치를 지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손흥민은 또 경고누적으로 중국전에는 아예 출장조차 할 수 없다. 해외파 중에서도 꾸준히 출장 중인 선수들 독일에서 뛰는 구자철, 지동원 등 ‘아우크스부르크 듀오’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원정으로 펼쳐질 중국을 상대로는 ‘사드 매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감한 외부변수 와도 싸워야 한다.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일명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로 한중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은 한국관광 금지령을 내려 자국민의 한국 입국을 불허하고, 롯데마트를 비롯한 한국기

업의 중국 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나서서 자국민의 ‘반한감정’을 유도하는 등 한중관계는 수교 25주년을 맞았음에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장 우리 대표팀도 영향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중국원정을 위해 전세기를 띄울 계획이었지만, 중국정부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중전이 펼쳐질 후난성 창사의 허룽스타디움은 5만5000석 좌석이 중국 서포터스 ‘추미(球迷)’로 가득 찰 것이 뻔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한국은 지난해 9월 홈에서 펼쳐진 중국과의 최종예선 1차전에서 3-2 신승을 거뒀다. 그라운드 안팎의 상황은 지난해 9월 맞대결 때보다 결코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 중국원정은 분위기가 남다를 것으로 이미 예상했지만, 외부변수 탓에 더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여러 난제와 싸워야 하는 ‘슈틸리케호’가 중국 원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다.

스포츠1부 dohoney@donga.com

여자축구대표팀 키프로스컵 준우승

여자축구대표팀이 9일(한국시간) 키프로스 나르나카의 AEK 아레나에서 열린 키프로스컵 결승에서 스위스에 0-1로 져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준우승은 여자대표팀의 키프로스컵 참가 역사상 최고 성적이다. 종전은 2014년 3위가 최고다. 0-0으로 전반을 마친 대표팀은 후반 13분

프리킥 상황에서 라라 디켄만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패했다. 대표팀은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2017 아디다스 K리그 주니어 11일 개막

K리그 산하 18세 이하 유소년팀들의 연중리그인 ‘2017 아디다스 K리그 주니어’가 11일 개막

한다. 올해는 출전 기회가 부족한 저학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저학년리그 ‘2017 아디다스 K리그 주니어 U17’이 신설됐다. ‘2017 아디다스 K리그 주니어’는 11월 4일까지 8개월 가량 펼쳐진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돌풍의 강원 vs 디펜딩챔프 서울 ‘빅뱅’

정조국, 옛 친정팀 서울 상대 첫골 도전
수원-전북·제주-울산 정면승부도 팽팽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2라운드 11~12일 전국 6개 구장에서 펼쳐진다. 개막라운

드에선 FC서울과 수원삼성전만 1-1로 비겼을 뿐, 나머지 5경기에선 모두 승부가 갈렸다. 총 13골이 터지는 등 시즌 초반부터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가 나와 겨우내 갈증을 느낀 축구팬들을 즐겁게 했다.

2라운드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빅카드가 많다. 강원FC는 11일 서울을 안방으로 불러들인다. 서울 황선홍 감독이 “이슈가 되는 경기”라고 말할 정도로 눈길을 끄는 경기다. ‘승격 팀’ 강원은 겨우내 폭풍영입을 통해 선수들을 대거 보강했다. 더욱이 올해 3위 안에 들어 내년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나서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 서울은 디펜딩 챔피언이다. 돌풍을 다잡고 있는 강원과 K리그 톱클래스 팀인 서울의 맞대결이다.

1라운드에서 상주상무를 2-1로 꺾은 강원은 홈팬들을 위해 승리를 다잡고 있다. 상주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이근호, 최전방 스트라이커 정조국이 선봉에 선다. 상주전에서 자신이 유독한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아쉬움을 뺏겼던 정조국은 ‘옛 친정팀’ 서울을 상대로 시즌 1호골에 도전한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2연패를 당한 뒤 수원을 상대로 1루



정조국

를 거둔 서울은 시즌 첫 승을 노린다. 광대휘가 부상으로 이탈한 뒤 부쩍 혈거워진 중앙수비 라인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아드리아노의 이적이 후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공격진이 폭발력을 찾을 기회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북현대는 같은 날 수원 원정경기에 나선다. 전북은 전남 드래곤즈와의 개막전에서 김진수-김진욱의 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불발된 전북은 클래식 우승과 FA컵 등 ‘더블’을 노리고 있다. 수원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경기에 이어 서울전까지 비기며 올해 치른 3차례 공식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 중이다. 두 팀 모두 승리가 간절히 마찬가지. 지난해 상대전적에선 전북이 2승1무로 앞섰다. 1라운드에서 나란히 골맛을 본 전북 김진수, 수원 김민우 등 ‘U턴 해외파’의 활약도 관심을 모은다.

서귀포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울산현대전도 빅매치다. 나란히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병행하고 있는 두 팀은 1라운드에서 모두 승리하며 승점 3을 쟁겼다. 제주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1-0으로 따돌렸고, 울산은 ‘동해안 라이벌’ 포항 스틸러스를 2-1로 제쳤다. 겨우내 앞장 선수보강으로 전북의 독주를 견제할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른 제주와 김도훈 감독 취임 이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의 맞대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